류큐왕국의 ‘일본 은폐’ 정책과 표류민 송환

정하미*
junghm@hanyang.ac.kr

<目次>

1. 들어가며	4. 류큐왕국의 대일본은폐정책에 대한 분석
2. ‘도마리’와 대일 관계 은폐정책	5. 마무리
3. 護国寺 서약과 사츠마의 재번관리	

主題語: 양속체제(dual system), 은폐정책(concealment policy), 조선표류민(Chosun castaways), 도마리(Tomari), 護国寺 선서(Oath at the Gokokuji temple)

1. 들어가며

근세시기의 오키나와는 중국에 조공함과 동시에 일본에도 종속된 류큐왕국으로 지금의 근대 국제질서에서 보면 이질적인 ‘양속’ 체제를 가진 독립된 국가였다. 메이지시대에 들어 소위 ‘류큐처분’에 의하여 일본으로 편입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점령 통치하에 있다가 1972년 다시 일본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경위가 오키나와를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현저히 다른 특성을 가지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오키나와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 즉 중국과 책봉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막번체제에도 소속되어 있는 특수한 지위가 근세 시기에 빈번하게 해상에서 일어난 해난사고에 의하여 류큐왕국에 표착한 조선 표민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기존연구에서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류큐왕국의 특수한 지위가 조선인의 표류 송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표류나 표착은 ‘이에 의해 대외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건을 점점으로 타국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되며 그 결과 류큐왕국의 특수한 상황이 현저하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조선과 류큐와는 외교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은 1638년¹⁾이며 그 이후에는 표류민 송환과 같은 비공식적인 교류만이 이어졌으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1) 하우봉편저 (1999) 『조선과 琉球』 아르케, p.67

므로 표류민 연구가 중요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류큐왕국이 성립되기 전 중산국시절인 1372년 국왕 샛토(察度)가 중국에 조공하여 국교를 맺은 후 1429년 중산국이 류큐왕국으로 통일된 후에도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었다. 류큐왕국이 일본에게도 귀속하게 된 것은 1609년 사츠마번이 3,000여명의 군대를 이끌고 류큐를 공격하여 국왕 쇼네이(尚寧)가 투항하였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는 에도 막부의 의향이 반영되어 있었고 패자인 류큐왕 일행을 ‘외교 사절’로 받아들이며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에 저항하던 세력들이 사라지자 류큐왕국을 일본의 막번제 국가의 외부에 자리매김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전면적으로 류큐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막부의 중국과의 외교나 무역의 중개를 부담시키는 방식이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책봉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사츠마번(확대하면 일본)의 지배하에 두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왕국으로 존재하는 류큐왕국의 ‘양속’체제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청나라는 명나라와 달리 제국의 외부에 대하여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았²⁾으나 책봉체제를 고수하였고 일본은 세금을 징수하고 대외관계, 무역에서 류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근년에는 2중의 입장을 가지면서 그 어느 쪽에도 회수되지 않는 ‘주체’를 발휘하는 류큐왕국의 독자적인 행보에 주목하고 3) ‘중국 과 일본에 대한 외교인식’(『唐・大和の御取り合ひ』)이라고 류큐의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4) 연구가 류큐왕국의 존립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며 류큐의 다양한 전체상이 주목받고 있다.

조선측 기록에는 류큐에 표착하였던 조선인 표류민이 돌아온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 실록에는 1662년 10월 전라도 무안 남녀 17인, 1663년 7월 전라도 해남인 28인, 1669년 10월 전라도 백성 21인이 류큐에 표착하였다가 조선으로 송환된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3례는 조선표류민이 일본에 표착한 경우 조선인이 일반적으로 송환되는 에도막번체제하에서의 송환체제에 준하여 조선으로 송환된 사례에 해당한다. 즉 류큐에 표착한 표류민이 나가사키로 이송되고 쓰시마를 거쳐 송환된 것이다. 그러나 1694년 이후 1698년에는 류큐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은 중국복건을 경유하여 송환되었다. 5) 이러한 송환 과정의 차이는 류큐왕국의 ‘양속’체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733년 류큐의 게라마섬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이러한 ‘양속’체제가 표류민 송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양속체제에서의 표류민 송환에서 드러

2) 岩井茂樹(2007)「清代の互市と“沈黙外交”」夫馬進編『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大学出版社
3) 渡辺美季(2009)「琉球侵攻と日明関係」『東洋史研究』68-3
4) 豊見山和行(2010)「敗者の戦略としての琉球外交—『唐・大和の御取合』を飼い慣らす—」『史苑』第70巻2号
5) 1698년의 사례는『동문회고』원편 권 66에 수록되어 있으며 1860년까지 중국복건을 거쳐 송환되었다.

난 특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류큐왕국이 중국과 일본에 ‘양속’한 사실과 표류민 문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류민 문제뿐만 아니라 사츠마의 지배의 양상과 류큐왕국의 대응에 이르기 까지 류큐왕국의 특성까지 시야를 넓혀 연구하는 것으로 이는 종래에 수행되지 않았으며 ‘양속’이라는 알기 어려운 체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 해양권역에서의 사람, 물자, 정보 등의 교류를 대상으로 한 학제적 연구가 다각적으로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중국, 류큐왕국, 일본, 조선 간의 다국가간 관계사의 연구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편전쟁이전의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가 중국왕조를 중심으로 한 중화제국체제에 속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막번제의 외연으로서의 질서로 유지되는 류큐왕국의 ‘양속’은 아편전쟁이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접 충돌의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하게 되는 ‘양속’체제가 오키나와에 표착한 조선인표류 송환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 지 알 게 될 것이다.

2. ‘도마리’와 대일 관계 은폐정책

『琉球王国評定所文書』⁶⁾는 류큐의 왕부의 의결기관인 評定所가 작성한 기록으로 지금은 그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조선인11인이 게라마섬에 표착하여 마량선으로 송환된 일기’(「朝鮮人拾壹人慶良間島漂着 馬艦船を以送越候日記」)(雍正十一年~同十二年) 320号는 류큐에 표착한 조선인 송환에 관하여 이를 담당할 관계부국이 교환한 문서군을 수록하고 있다. 1733년 11월 29일 조선인 남녀 11명이 탄 선박이 류큐왕국의 게라마섬에 표착하였는데 이들은 해남에서 거제로 가려던 어민과 가족들이었다.⁷⁾

이들은 6일 뒤에 류큐왕국의 표류민 정책에 따라 게라마섬에서 오키나와 본섬에 있는 도마리로 이송되었다. 도마리는 나하 근처에 있는 표류민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다. 이들을 담당하는 주 책임부서는 외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왕부의 사스노소바(御鎖之側)인데 나하에 있는 시설이고 또한 사츠마번의 출장기관인 御在番所가 있어 사츠마에서 파견된 관리가 20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고⁸⁾ 표류민의 송환에 대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송환에 관한 행동을 결정한다.⁹⁾

6) 琉球王国評定所文書編集委員會編(1988)『琉球王国評定所文書』1권, 浦添市教育委員會

7) 정하미(2015)「표착민의 신원 및 유구왕국의 대응」『일본학보』104집

8) 1631년부터 1872년까지 존속하였던 사츠마번의 기관으로 사츠마, 일본의 류큐지배의 거점이다.

조선인 표류민이 도마리로 이동한 12월 4일 사츠마의 재번소의 장인 부교(在番奉行) 蒲生十郎左衛門과 수행관리인 요코메(横目)坂元仁右衛門·川西平左衛門, 스키슈(付衆)日高十左衛門·桐野仲左衛門, 筆者(히사) 橋口源之進, 与力(요리키)有馬藤右衛門, 足輕(아시가루)四元覺助·田中喜左衛門가 직접 도마리를 방문하여 표류민의 모습을 장막 뒤에서 살펴보고 있다.¹⁰⁾ 실제로 표류민을 조사하고 담당하는 것은 류큐왕국의 사스노소바와 도마리의 관리이지만 사츠마의 관리가 비공식적으로 표류민을 살펴보고 이국에 관한 관련정보를 수집하며 표류민 정책에 구체적인 행보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류큐의 행정부서의 실제적인 최종 결정자인 三司官은 12월 4일 표류민을 ‘見物’하는 것을 금지하고¹¹⁾ 사스노소바의 관리는 도마리관리에게 ‘地下人(류큐왕국의 주민)’의 (도마리시설의)출입을 금지하며 접근하여 ‘言語相通’ 하는 것을 금지하는 板書調立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국인인 조선표류민과 류큐의 주민과의 접촉을 금지한 것이다. 이 외에 ‘終夜行燈’을 켜고 순찰을 하며 ‘불조심’을 당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치안과 경호, 격리체제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5일에 나온 또 다른 금지조항은 이색적이다. 표류민 거주지 근처에서 ‘大和哥’를 부르지 말 것, ‘大和年号’ ‘京錢’, ‘大和人之名字’를 보이지 말 것, 표류민이 거주하는 동안 ‘高札’을 걸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이러한 것들이 통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大和’는 사츠마, 일본을 의미하므로 화폐, 노래, 이름, 연호에서 일본의 것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이국인(조선인 표류민)이 류큐왕국에서 사용되는 화폐 ‘当地通融之錢’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류큐왕국에서 만드는 ‘鳩目錢’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매우 세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사스노소바의 관리 安次富親雲上, 富名腰親雲上가 도마리의 관리 泊頭取에게 지시하여 板書調立하여 엄중하게 지시된 것이다.

이국인에 대하여 격리정책을 쓰는 것은 일본 막번제의 기본원리인 쇄국정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류큐왕국이 류큐 국내적으로는 일본노래나 일본연호, 일본화폐, 일본이름이 통용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에 통용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화폐, 일본의 연호, 일본인 이름을 이국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일본 문화의 일환인 일본노래를 하지 않게 한 것은 류큐왕국에서의 일본영향을 보이지 않게 하고 나아가 류큐왕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9) 정하미(2015)「류큐왕국의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고찰」『비교일본학』33집

10) 琉球王国評定所文書編集委員會編(1988)『琉球王国評定所文書』1권, p.71

11) 琉球王国評定所文書編集委員會編(1988)『琉球王国評定所文書』1권, p.72

류큐왕국이 사츠마번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은폐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인가?

류큐왕국이 사츠마번 넓게는 일본과의 관계를 은폐한 이유는 먼저 대청관계에서 현저하다. 12)중국인이 대거 류큐왕국을 방문하는 시기는 冠船=冊封船이 내항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류큐왕부가 대일본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중국 관선이 일본선박과 마주치지 않도록 사츠마번과 재번부교와 긴밀한 연계로 은폐책을 구축하고 일본선박을 다카라지마(일본의 섬이름)선박으로 위장하는 방식이 대일관계 은폐의 중요한 내용이었다.¹³⁾

류큐왕국이 외교의 주체로서 ‘대일관계은폐정책’을 사용한 것은 청나라가 1684년에 해금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복건과 광둥연해에서 해외 출항이 허가되고 무역이 공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중국인의 해외 도항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류큐에 오는 책봉사에 대한 정책만 시행하면 되었던 것이 점차 보통사람에게도 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류큐왕국이 꺼렸기 때문인 것이다. 1609년 시마즈의 침공에 따라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시점에서부터 중국이 해금정책을 완화하여 이러한 지배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발생하는 1684년까지 조선의 표류민 송환은 일본의 통상적인 송환절차에 따라 나가사키를 거쳐 쓰시마를 통해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684년 새로운 우려가 발생하자 1689년의 사례를 시작으로 이 후 계속하여 중국으로 류큐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을 송환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사키에 이들을 보내 일본과의 관계가 노출되는 것을 류큐왕국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류큐왕국은 사츠마의 허가없이 이러한 복건의 송환정책으로 변경한 것이고 10년이 지난 1694년 사츠마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 있다. 외교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을 감추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로서는 당연한 태도¹⁴⁾라고 보는 근년의 연구 결과는 류큐왕국의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류큐최초의 정식역사기록인『中山世鑑』를 편찬한 하네지 초슈(羽地朝秀 1617-1676)(唐名·向象賢)는 ‘日琉同祖論’을 주장하고 그가 섭정으로 재임하는 동안인 1666년에서 1673년까지 낸 법령포달 문서집「羽地仕置」을 보면 왕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왕국의 전통을 막번체제적 질서의 일환으로 재편성하려는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족이 즐겨야할

12) 豊見山和行(2004)「虚構と実像の錯綜する島=トカラ—近世琉球におけるトカラの歴史的役割—」琉球大学学術リポジトリ, p.33
 13) 豊見山和行(2004)「虚構と実像の錯綜する島=トカラ—近世琉球におけるトカラの歴史的役割—」琉球大学学術リポジトリ, p.37
 14) 岡本弘道(2008)「17~18 世紀初における琉球王国の構造変容—文化交渉の交差点として—関西大学の第1回次世代国際学術フォーラム「境界面における文化の再生産」のセッション1「近世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交渉としての外交」における報告, p.5

예능으로 12종을 들고 있다. 15) 일본의 노래가 일반화된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羽地仕置」에는 관리의 직무에 관련된 학문, 전문에 특화된 의학, 「謠」「唐樂」「茶道」「立花」등 접대 사교에 관련된 기능 등이 일종의 '문화전략'으로 연동되어 류큐왕국에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류큐왕국의 전 도서 사회의 일상에 스며들어 내면화되어 류큐의 자기인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전략은 '종속적 이중 조공국'으로서의 곤란하고 복잡한 역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1733년 조선 표류민에게 '아마토 우타'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은 이러한 류큐왕국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고 '대일 은폐정책'은 게라마섬의 재번인-나하의 사스노소바-나하의 사츠마의 재번소-도마리의 기관 등 4곳이 서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도마리리는 한정된 공간에 격리시켜 조선 표류민이 류큐왕국 사회의 일반적인 정보를 얻거나 마을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 '양속'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하여 일본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외교적 의도에 의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護国寺 서약과 사츠마의 재번관리

1733년 12월 15일 조선선박 표류민의 중국송환이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날 중국에 건너갈 통역(大通事) 仲井真里之子親雲上, 전체를 관장하는 재령인(宰領人) 田湊里之子親雲上, 그리고 총관(總官) 安富祖里之子, 선장(船頭)与那嶺筑登之親雲上 4명에 대한 인선이 공표되었다. 정월이 끼어 있기 때문인지 선원 중 佐事 5인과 水主 20인의 추가 인선이 결정된 것은 1월 9일과 10일이었다.

이들에게 2월 10일 사스노소바의 책임자 富名腰親方는 이들 재령인, 이들 재령인, 선장(船頭), 水主 에 대하여 나미노우에(호국사의 소재지)에서 사츠마의 재번부교앞에서 서약을 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이날 중국으로 도항할 선박의 무게 중심을 위하여 나하항구에서 균형을 위한 돌을 적입하고 재령인, 선장(船頭), 水主의 武具 및 持高銀, 비상용 은(用心銀) 사적인 짐(私荷物)을 입회하여 검사하여 선박에 실고 이후 보초를 세워 지킬 것을 통보하고 있다. 13일에는 중국에 보낼 공식 문서를 南風之御殿에서 작성한다. 2월 21일에는 재번소에 사스노소바의 佐久真親雲上가 가서 25일 중국에 건너갈 사람들이 모여 護国寺에서 서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였더니 25일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번소와의 세심한 조율이

15) 沖縄県沖繩史料編纂所(編)(1981)『沖縄県史料前近代1 首里王府(仕置)』沖縄県教育委員会, p.24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하게 될 사원담당관리(寺社奉行方)·那覇里主·御物城·宰領人에게도 전례와 같으므로 서약일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전달하고 있다.

드디어 25일 당일 오전 10시경에 류큐왕국의 책임자인 北谷王子, 伊江親方, 御鎖之側 佐久真親雲上이 호국사의 강당에 등장하고 이어 사츠마의 재번 부교인 蒲生十郎右〈左〉衛門, 요코메(横目)坂元仁右衛門, 쓰게야쿠(附役)桐野仲左衛門, 히사(筆者)橋口源之進, 요리키(与力)有馬藤右衛門, 아시가루(足輕)四本覺助가 호국사에 도착하였다. 명단을 검토하여 보면 12월 4일 도마리에 도착한 표류민을 장막 뒤에서 봤던 일행 중 2명이 빠진 것뿐이고 거의 동일인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왼쪽으로는 사츠마의 재번부교가 강당전면에 앉고 北谷王子 등도 오른쪽으로 열좌하고 재령인일동이 나와 부교에 인사하고 총관과 선장이 말석에 앉고 佐事·加子·供之者는 계단아래 마당에 줄서 시작되었다.

서약서는 天罰靈社起請文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기독교(鬼利支且宗門)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이러한 종지를 가지지 말것, 琉球之儀, ‘鹿兒島之御手二入候由’ 즉 류큐가 가고시마의 지배하에 있는 점을 당에서 누설하지 않을 것 그리고 류큐의 善否 만사를 중국에서 발언하지 않을 것 등에 대하여 혈판과 서약을 한다. 이외에도 무구류를 중국에서 팔지 않을 것 독약 소지 금지, 돌아올 때 중국인을 태우고 오지 않을 것 등 다지에 걸쳐 서약을 하고 있다. 가고시마, 일본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호국사의 서약에서는 지금까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츠마의 재번소의 관리가 전면에 등장하여 이들에게서 서약을 받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에 가는 일행 들은 이렇게 호국사에서 서약하고 혈판을 찍고일련의 의식이 끝난 후에 강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1시정도에 해산한 것으로 보인다.

2월 28일에는 10시 무렵 통당에 나와 짐을 조사하였는데 이 부분의 기록은 결여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시 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월 29일에는 사츠마번의 재번 관리가 류큐의 관리와 함께 무구와 조선인 표류민에게 지급될 쌀 등을 점검하고 있다. 3월 1일에는 은을 실고 승선 인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사츠마의 관리가 동행하고 있다. 3월 9일 중국을 향하여 출선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곧 사츠마의 재번소에 알려지고 도마리의 조선인 시설을 살피고 사츠마의 재번 부교쇼에 보고를 마침으로써 류큐에서의 표류민 송환절차가 종료되었다.

12월 4일 장막 뒤에서 도마리에 도착한 조선인 표류민을 지켜보고 있던 사츠마의 관리가 2월 25일의 호국사에서의 서약과 승선장면에서는 전면에 나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기의 사례로부터 20년이 지난 1753년에는 가고시마나 중국으로 오가는 도중 해난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서가 문서로 만들어졌다. 중국책봉사가 류큐에 온 경우를 상정하는 것과 달리 이례적인 사태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일본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1753년의「旅行心得之条々」, 1759년의「同追加」는 왕부의 평정소에서 사츠마번으로 도항하는 류큐왕국의 사자, 그리고 재번으로 부임하는 이들에게 포달된 전반부분과 중국으로 항해하는 이들에게 포달된 부분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가고시마나 중국으로의 여행 도중 도항하는 사람들이 해난사고로 중국에 표착하였을 경우 중국 관헌에게 심문받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답변의 모범해답을 조문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마토(사츠마번)의 관계, 도카라(다카라지마)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 청나라에 대하여 류큐와 일본관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구체적인 문서의 작성은 17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류큐왕국의 ‘대일관계은폐정책’의 일환이다. 압도적 열위에 있는 류큐왕국이 사츠마번이나 막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전략 16)이 류큐왕국의 ‘양속’체제이며 이후 류큐왕국을 오가는 일본인은 중국인에게는 ‘다카라지마’사람이라고 설명되었다.

중국에서 국왕으로 책봉사가 보내져 류큐를 방문할 경우에는 일본에 관여되는 모든 물건, 사람이 일시적으로 은폐되었고 대처메뉴얼이 18세기동안 여러 번에 걸쳐 편찬되었다. 중국의 책봉사가 류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1683년에서 1719년까지는 책봉시에 宝島人¹⁷⁾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책봉사와 사츠마의 관리를 만나게 하였으나 점차 책봉사와 대면하는 일도 사라졌다. 중국에 가는 류큐인, 표착이라는 형태로 중국에 간 경우 宝島人(七島)라고 하고 류큐에 교역을 위하여 다가오는 사츠마의 선박은 모두 다카라지마의 상선이라고 강변하였다. 이 후 중국의 책봉사가 왔을 때는 사츠마의 관리는 나하를 떠나 城間(グスクマ村, 지금의 우라조에 시)으로 피신하였다.¹⁸⁾

16) 豊見山和行「敗者の戦略としての琉球外交—「唐・大和の御取合」を飼い慣らす—」『史苑』第70卷, p.42

17) 지금의 토키아리섬, 과거의 七島를 총칭하여 宝島라고 부른다.

18) 「古来冠船之節々御奉行御始役々衆其外御国人惣而城間村江御引越被成事候处、唐人共ニハ宝島人隠居候ト申、其疑相晴不申軀相見得申候、宝曆六子年寛政十二年冠船之節城間村江宝嶋人參居候」慶応二(1866・同治5)年『琉球冠船記録』六、冠船付日帳台湾大学図書館蔵慶応二年『琉球冠船記録』六、p.340

4. 류큐왕국의 대일은폐정책에 대한 분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류큐왕국은 조선인 표류민을 격리 수용한 도마리에서 그리고 표류민을 송환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류큐왕국에서의 일본의 지배나 문화의 영향에 대하여 은폐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류큐왕국의 ‘양속’체가 조선인 표류민 송환이라는 해난사고의 처리에 있어 관련이 있는 것은 표류사고가 다국가 간의 교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심층적으로 류큐왕국의 대일 은폐정책에 대하여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류큐왕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은 1609년 시마즈 이에히사가 權山久高, 平田増宗를 파견하여 3천명의 병대를 통솔시켜 류큐를 공격하였고 4월 1일 수육군이 침공하여 수리성을 포위하고 5일 쇼네이(尚寧)가 투항하였다. 1610년 8월 16일 가고시마에 연행되었던 쇼네이는 사츠마 번주 이에히사의 안내로 슌부성에 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빙례를 하였다. 가미야 노부유키는 모리가문의 자료를 인용하여 쇼네이가 일본천황과 같은 가마를 타고 중국풍의 의상을 입고 ‘패자’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8월 18일 에도를 향하여 당시의 집권자인 2대 히데타다의 향응을 받았음을 지적하여 그가 ‘외교 사절’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¹⁹⁾ 그러나 그가 ‘패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났다고 하여도 류큐왕국의 지위에 대한 다른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사츠마의 「領分」附庸國이지만 에도막부는 완전히 류큐왕국을 내국화하지 않고 「異國」인채로 막번제 국가의 영역내에 포함시킨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그 결과 막번제 국가의 지배원리인 기독교 금지나 토지검지가 류큐왕국에서도 시행되었다. 사츠마번은 침공후 전 지역의 검지를 실시하여 류큐의 토지를 8만 9천86석의 쌀 생산량에 해당하는 토지로 산정하고 그 때까지 류큐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마미제도를 사츠마번의 직할지로 바꾸고 세금을 결정하고 1611년 류큐왕국 통치의 기본 법령인 ‘오키테 15조’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사츠마의 명령없이 중국과 무역을 하거나 사츠마의 허가 없는 상인을 허락하지 않고 세금은 사츠마가 결정하고 무역을 통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막번체제의 ‘이국’으로 존속시킴에 따라 종주국으로의 진공은 정치적 복속 의례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속국으로서 무역의 이익을 획득하는 기회로 중시하였다. 실제로 류큐왕국의 중국에의 조공은 사츠마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那覇市史』資料篇第1卷2「琉球館文書」一0 三号寛政五(1793・乾隆58)年 진공물품 조달의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19) 紙屋敦之(2003)『琉球と日本・中国』山川出版社, p.50

琉球の儀誠に不自由の小国故、往昔より自力迄ニては渡唐の勤不相意叶、專御国の御蔭を以漸相調來事ニて、此際御威光奉仰外無御座候²⁰⁾

여기에 소국이라 중국에 조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츠마번이 조공품의 조달을 한 때문이라는 기술이 있다. 1631년부터 시마즈의 관리가 재번부교로서 나하에 실제로 주재하고 외교 내정전반에 걸쳐 감시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로 기독교 적발, 대 중국무역관리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대외 교역권에 대하여 주목하였고 표류민에 대한 안전도 사츠마의 재번소가 크게 관여하였다.

그 결과 책봉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류큐왕국의 신분제도도 제약은 있지만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츠마에 의하여 정복되기 이전에는 명나라에 대하여 2년에 1공의 체제였으나 일본에게 정복된 일이 영향을 미쳤는지 10년에 1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로 10년이 되기도 전에 1623년 琉球国王 尚豊이 책봉을 요청하자 5년1공으로 바뀌었고 다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천계 5, 6년 승정2,4년에도 조공하였다. 이는 사츠마번 나아가 일본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21) 이러한 중국과의 책봉관계는 메이지에 들어 1879년 ‘류큐처분’이 일어날 때까지 존속하였다.

조공사절의 파견 규정은 2년1공으로 정착화하고 1667년에 들어 진공선의 선박은 진공사를 중국에 내려주고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사신을 위하여 접공선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접공선의 파견이 제도화되자 실질적으로 매년 진공선을 파견하는 셈이 되어 2년마다 공기에 해당되는 해에 대당선(120명), 소당선(80명)의 2척의 진공선이 파견되고 다음해 북경에서 돌아오는 정사(정사일행20명)를 맞이하는 접공선(80명) 1척이 파견되었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북건 주변이었고 북건의 성외에 있던 柔遠驛(琉球館)이 활동거점이고 류큐왕국의 관리나 유학생 등이 상주하였다. 22)

류큐와 청나라와의 외교는 대일관계가 복잡한 것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다. 직접 외교관계를 맺는 福建布政司, 禮部는 행정조직의 일부국인데 최종적으로는 황제의 의사가 관철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류큐의 국왕이 바뀌면 책봉사절이 오는 것이었다. 1404년부터 1866년까지 책봉사는 23회 파견되었고 근세류큐기에는 9회에 걸쳐 책봉사가 파견되었다. 사절단은 대개 300-600명 정도이고 북건에서 나하에 이르기까지 통상 7-10일 정도 소요되었다. 무악과 서화 시문의 응수, 진상 예물, 향응요리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고 책봉 사절단은 경우에 따라

20) 『那覇市史』資料篇 第1卷2、那覇市役所、1870年 7月、p.86

21) 宮田俊彦(1976)「近世初期の琉明貿易—征繩役後、明まで—」(『日本歴史』第340号、p.18、吉川弘文館、1976年 9月)

22) 深澤秋人(2005)「福州琉球館をめぐる状況」『沖縄県史 各論編4 近世編』沖縄県教育委員会

계절풍을 기다리기 위하여 최저 3개월을 체재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 기간 동안 관광이나 정보 수집을 하였다.²³⁾ 중국의 책봉사가 류큐에 올때에는 다대한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었고 이 역시 사츠마로부터의 차급에 의하여 운영되었다.²⁴⁾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중요한 사안이었던 류큐왕국의 본격적인 대일은 폐공작이 중국인이 해외 도항이 가능하게 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1684년이 하나의 기점이었던 점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東恩納寛厚「薩摩の琉球(に対する二政策)」²⁵⁾에서의 지적처럼 시마즈번이 류큐의 일본화를 금지하고 류큐를 대국처럼 보이게 하는 정책을 채용한 점에 기원이 있다. 이는 이미 1612년의 시점에 일본과 국교가 성립되지 않았던 중국과의 중개역을 이미 정치, 풍속의 양면에서 류큐의 자주성을 인정하여 중국과 류큐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류큐를 류큐의 모습대로 두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중주국의 책봉과 속국의 진공을 기본적 조건으로 형성된 당시의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질서 속에서 체제의 성립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류큐의 양속이 결정되고 이를 위하여 일본이 류큐왕국이 대일본폐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해난사고가 일어난 경우 책봉진공체제내의 각국은 조난자를 보호하고 진공루트를 통하여 송환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속국끼리의 조난자의 경우 중주국을 경유하여 송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청국과 정식 정치적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독자적 질서관계와 송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막번제의 규제를 받아들인 류큐왕국은 1609년부터 1684년까지는 일본의 송환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쓰시마로 조선 표류민을 송환하였으며 1684년부터는 청국과의 책봉 진공체제를 우선하여 에도막부의 동의없이 체제를 변경하였고 10년 후 에도막부에 의하여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이다.

류큐왕국의 양속정책은 에도막부나 중국의 정책제한에 의하여 직접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없었던 사츠마번이 류큐를 통해 무역적 이익을 얻고 중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²⁶⁾이었으며 중국과 일본의 2대국의 논리가 류큐에서 중복된 것이고 중국과 일본의 지배논리의 경계, 존으로서 기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허구성을 인식한 것은 일본 스스로였으

23) 1534년 이후 정사는 귀국후 문헌을 저술하는 관례에 따라 류큐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어「使琉球録」이라는 전문글을 남기고 있다. 原田禹雄가 번역한 것이 있으며 사료적 성격에 대하여는 夫馬進「使琉球録と使朝鮮録」同編『増訂使琉球録解題及び研究』榕樹書林、1999년가 있다.

24) 『那覇市史』資料篇第1卷2、「琉球館文書」168号「申年冠船のため拝借銀八百貫目滞納、利銀免除願」に、代々冠船の度毎、国力難相達、太金の入僱御座候故、時々拝借の御蔭を以、是迄礼式相調来候 『那覇市史』資料篇第1卷2、那覇市役所、1870年 7月、p.250

25) 琉球新報社編(1979年4月)『東恩納寛全集』4、第一書房、pp.224-235

26) 真榮平房昭(1990.10)「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と琉球の位置」『思想』第796号、岩波書店

므로 류큐가 대일 은폐정책을 시행한 것에 동의하였고 이는 사츠마, 나아가 일본이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외교필요상의 정책이라기 보다 중국과 일본의 지배논리가 병존하면서 전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한계에 대하여 사츠마, 나아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의 산물이라고 볼 수있으며 이를 강화하여 위기를 안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류큐가 국가 구성 원리 안에 내재화하는 과정이 류큐왕국의 대일 은폐정책이었던 것이다.

5. 나가며

표류민 송환은 단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중국과의 관계, 교역에 관련한 중대 안건이었고 이 점은 사츠마번이 가장 통제하고 싶은 분야이었으므로 조선인 표류민 송환에 대하여 류큐의 나하에 있는 사츠마의 재변소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는 류큐왕국의 ‘양속’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중국왕조와의 종속관계가 없는 막번 제하의 일본은 사츠마번을 통하여 류큐왕국을 통제하고 독자적인 해금정책안에 류큐왕국을 포섭하여 동아시아에 책봉진공체제적 질서와 막번제적 질서가 병립하게 된 것이었다. 이 2개의 질서는 류큐왕국을 매개로 상호보완적으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규정하게 되었고 류큐왕국은 책봉체제의 자주국으로 인지되지만 동시에 사츠마번의 부용국으로서 막번체제의 외연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류큐왕국의 대일 은폐정책은 류큐왕국의 집단 안전보장체제로서 기능하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2대 지배논리를 전제로 독자적인 국가구성원리를 정합시켜서 국가로서 존재하게 하였으며 일종의 류큐왕국의 자기변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편전쟁전후부터 이러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는 동요하고 류큐왕국의 조정기능이 저하하고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페리가 류큐왕국에 다가온 1853년에 그 모순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된다. 대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이는 파탄되었다.²⁷⁾

그 후 ‘역사적 개성’으로서의 류큐왕국의 국제질서가 재편성되게 된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근대 국제법=만국공법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대등성의 원리가 중요한 근본 원칙이 되어 책봉진공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만국공법체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27) 정하미(2011)「류큐왕국의 ‘兩屬’문제와 페리의 상륙」『일본학보』86집, pp.349-364

이는 돌이켜 보면 조선에게도 강요된 선택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대등성의 원리에 의한 만국공법에 의해 거꾸로 불평등조약체제가 창출되었다.²⁸⁾

【參考文獻】

琉球王国評定所文書編纂委員会(1988)『琉球王国評定所文書』第1卷,浦添市教育委員会

정하미(2015)「표류민의 신원 및 유구왕국의 대우」『일본학보』104집

_____ (2015) 「류큐왕국의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고찰」『비교일본학』33집

_____ (2011)「류큐왕국의 ‘兩屬’문제와 페리의 상륙」『일본학보』86집

渡辺美季「近世琉球における対「異国船漂着」体制—中国人・朝鮮人・出所不明の異国人の漂着に備えて—」

_____ (2009)「琉球侵攻と日明関係」『東洋史研究』68-3

_____ (2005)「清に対する琉日関係の隠蔽と漂着問題」『史学雑誌』114-11

_____ (2005)「清に対する琉日関係の隠蔽—『旅行心得之条々』の分析を中心に—」『アジア民衆史研究』10集

_____ 「近世琉球における外国人漂着民收容センターとしての泊村」『第四回沖縄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ヨーロッパ大会』

豊見山和行(2010)「敗者の戦略としての琉球外交—「唐・大和の御取合」を飼い慣らす—」『史苑』第70巻2号

_____ (2004)「近世中期における琉球王国の対薩摩外交」(『新しい近世史② 国家と対外関係』新人物往来社、1996年)、豊見山和行『琉球王国の外交と王権』吉川弘文館

田里修(2009)「蔡温と乾隆(元文)見地」『琉球王国の測量技術研師たち』『しまたてい』51号

松原孝俊「琉球の朝鮮語通詞と朝鮮の琉球語通詞」『歴代宝案研究』8号

伊波和正(1996)「琉球王国の通訳者」『沖縄国際大学公開講座1 琉球王国の時代』沖縄国際大学公開講座委員会編・発行

上江洲敏夫(1987)「御飯屋日記」『沖縄県立博物館紀要』第13号

真栄平房昭(1990.10)「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と琉球の位置」『思想』第796号、岩波書店

紙屋敦之(2003)『琉球と日本・中国』山川出版社

_____ (1990)『幕藩体制国家の琉球支配』校倉書房

『歴史のはざまを読む—薩摩と琉球』溶樹書林(2009)

西里喜行(2005)『清末中琉関係史の研究』京都大学出版会

濱下武志(1990)『近代中国の国際的契機—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

夫馬進(2008)「1609年、日本の琉球併合以降における中国・朝鮮の対琉球外交—東アジア四国における冊封、通信そして杜絶」『朝鮮史研究会論文集』No.46

喜舎場一隆(1993)「近世琉球の対外隠蔽主義政策」『近世薩琉関係史の研究』国書刊行会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28) 西里喜行(2005)『清末中琉日関係史の研究』京都大学出版会、p.13

 <要旨>

류큐왕국의 ‘일본 은폐’정책과 표류민 송환

1614년 전국적인 ‘기리시탄 금교령’이 내려지자 사제들은 잠복 사목 활동을 하다가 추방되거나 순교 당하게 된다. 특히 한 사람의 사제도 없는 상황에서 금교령이 해제될 때까지 신자들 스스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세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儀式)과 교리, 기도문 등을 세대를 거듭하여 전승해 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잠복 기리시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을 잠복시대(1644-1873)라 한다.

본고는 기리시탄시대(1549-1644)의 혼인성사가 잠복시대에도 전승되어 왔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통혼(通婚)에도 불구하고 비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된 이유는 주로 공동체 내혼(內婚)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기리시탄 상당수에서 혼인성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사제의 부재와 지속적인 탄압의 영향으로 변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1873년 해금(解禁)을 맞아 기적적으로 교회로 돌아온 자도 많다.

The Concealment policy of Ryukyu kingdom and repatriation of Chosun Castaway

This paper conclusively affirms that the Ryukyu Kingdom's dichotomous and simultaneous adoption of both China's political system and Japan's government system is to be seen as a "historical idiosyncrasy" characteristic of that Kingdom. Through the example of the repatriation of Chosun castaways who landed in Ryukyu in 1733 to China, this paper seeks to reveal how this dual system adopted by the Ryukyu Kingdom impacted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out Far-East Asia.

Moreover, this paper shows how this dual system led to the Ryukyu Kingdom's concealment policy of Japan through an examination of how the castaways, confined in the Tomari, were absolutely restricted from exposure to Japanese traditions and how those accompanying the castaways to China were strictly forbidden to mention Japanese traditions to the castaways.

Finally,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behind the Ryukyu Kingdom's concealment policy concerning Japan and reaches the conclusion that Japan itself had been, in fact, aware of such fiction.